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고래
수상내역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장려상
작가	나현미
소재	장생포 고래
기획의도	<p>고래가 상징하는 것은 희망이다.</p> <p>하지만 고래들이 차츰 사라져간다. 그만큼 우리의 삶도 희망도 사라져 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우린 살아 있고 바다엔 아직 고래가 살고 있다.</p> <p>완전한 희망의 실종은 없는 것이다.</p>
등장인물	<p>정희: 女, 37세. 죽은 아들 연호에 대한 집착을 놓고 있지 못한다.</p> <p>연호: 6세. 정희의 아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아이이다.</p> <p>영철: 40세. 울산에서 민박집을 운영. 늙은 아버지와 뇌사에 빠져 있는 딸을 부양하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간다.</p> <p>유림: 12세. 뇌사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영철의 딸.</p> <p>영철부: 70세. 영철의 아버지.</p> <p>그 외 고래바다 여행선 직원, 고래고기집 주인, 행인 등.</p>

썸1. 방안/ 낮

적막한 방 안.

우울한 표정의 정희가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다.

주변엔 아이들 장난감이 있고, 온통 벽에는 연호의 사진이나 정희와 연호가 같이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연호의 그림으로 보이는 조악한 솜씨의 그림 하나.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 위에 아이가 타고 있는 그림이다.

그 그림을 바라보는 정희의 눈에 눈물이 어린다.

메인타이틀 ‘고래’

썸2. 고속도로/ 낮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청명한 하늘과 양옆으로 푸른 숲이 시원한 고속도로길이 나온다.
그 위로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펼쳐진다.

썸3. 고속버스 안/ 낮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정희와 연호,

연호 (좁이 쭈신 듯 몸을 비비 꼬다) 거의 다 왔어?
정희 ...좀 더 가야 해.
연호 얼마만큼 가야해?
정희 백개를 백개 세면, 그럼 다 왔어.
연호 그렇게나 많이?
정희 그래.
연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개를 끄덕여 가며 수를 세는 연호.

그런 연호를 귀엽게 바라보는 정희.

정희 속으로 세.
연호 ...(입모양으로 만)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참 수를 세는 연호를 귀여운 듯 보는 연수.

옆의 사람이 해수를 이상한 시선으로 힐긋 힐긋 바라본다.

썸4.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오후

터미널 밖으로 나오는 손을 잡고 정희와 연호.

낮선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정희 (지나가는 행인에게) 저, 여기 장생포고래 박물관 가려면 어느 버

스타면 되요?

행인 (정류장을 가리키며) 저기 정류장에서 246번 타고 해군부대에서 내리면 되는데요.

썸5. 고래 박물관 매표소/ 오후

커다란 귀신 고래모형이 지붕 위에 얹혀져 있는 독특한 모양의 매표소.
정희가 그 매표소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다.

정희 (아래를 내려다 보며) 연호야. 저기 봐봐.

연호가 매표소 건물 위 고래를 보고 ‘야. 고래다~’라고 환호하며 폴짝폴짝 뛰다. 그런 연호의 옆에서 고래모형을 올려다보는 혜수,
햇살에 눈이 부신지 눈을 찡그린다.

썸6. 박물관/ 몽타주

본관

-박물관 구경을 하는 연호와 정희.
마치 공룡의 뼈처럼 커다란 고래의 뼈를 보고 입을 딱 벌리고 놀라는 연호.

고래 생태 체험관

-돌고래가 헤엄쳐 다니는 터널형태의 수족관을 지나치는 연호.

- 돌고래 모형 위에 앉아 V를 그리며 사진을 찍는 연호.
그런 연호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정희.

생태 체험관 내 수족관

-돌고래가 점프하며 공놀이를 하는 돌고래 쇼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연호. 돌고래가 연호에게 물을 뿌리자 깔깔대고 소리 내어 웃는다.

4D영사관

3D안경을 쓰고 고래 동영상을 보는 연호와 정희.
연호가 신기한지 눈앞에 손을 휘젓기도 하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한다.
의자가 움직이자 화들짝 놀라는 연호.

썸7. 박물관 밖/ 저녁

고래 박물관을 나오는 정희와 연호.

정희 재미있었어?

연호 ...응.. 근데..

정희 왜?

연호 진짜 고래를 보고 싶었는데....
 정희 봤잖아. 돌고래. 수족관에서 묘기도 부리고, 연호 좋아서 박수 쳤잖아.
 연호 진짜 커다란 고래~ 바다에 사는 고래 말이야.
 정희 내일 고래바다 여행선 타자. 그거 타면 볼 수 있대.
 연호 ... 좋아. (정희의 손을 잡고 흔든다.)
 정희 배고파?
 연호 ...응
 정희 그래. 밥 먹자.

주위를 둘러보는 정희. 주변엔 고래 고기 집과 횃집들이 즐비하다.

썸8. 고래 고기 집/ 저녁

머뭇대며 고래 고기 집으로 들어온 정희와 연호.
 그때 수더분해 보이는 주인아줌마가 홀 안으로 나온다.

아줌마 뭐 드실라니꺼?
 정희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며) 뭐가 맛있나요?
 아줌마 고래고기 처음 드시는 거라면 수육이 낫지예.
 정희 (한참 가격표를 보다) 예. 그걸로 주세요.
 아줌마 기다려 보이소.

정희의 말에 갑자기 울상을 짓는 연호.
 서빙 하는 아줌마가 상을 차리자 연호가 갑자기 흘쩍이기 시작한다.
 당황해 하는 정희,

연호 싫어! 난 고래 고기 안 먹어! 난 고래 불쌍해~ 싫단 말야
 정희 (당황해 하다) 아 알았어. 저 됐어요.
 주인 (돌아 본다.)예?
 정희 저 죄송하지만 그냥 나갈게요.
 주인 (인상 구기며)와예?
 연호 고래 불쌍해서 싫어.. 안 먹어.
 정희 ...(쭈뼛)고래가 불쌍하대요.
 주인 누가예?
 정희 암튼 준비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연호의 손을 잡고 부리나케 나가는 정희.

주인 하메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재수 없고 마.

썸9. 고래 고기집/ 저녁

울음을 삼키며 서있는 연호를 보며 한숨을 쉬는 정희.

정희 (손 내밀며) 됐어. 울지 마. 그래 고래 고기 먹지 말자.
 연호 ..(울음을 그치고 정희를 본다.)
 정희 그럼 뭐 먹지?

연호의 손을 잡아끌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정희.
 눈에 띄는 건 횃집과 고래 고기 집뿐이다.
 그때 차를 세우고 정희와 연호를 주의 깊게 보던 영철이 다가온다.

영철 여행 오셨습니까?
 정희 (잔뜩 경계하며) 예.
 영철 목으실 데는 구했습니까?
 정희 식사할 데 찾는데 여기 그냥 일반 식당은 없어요?
 영철 와 없겠습니까? 이리 따라 오이소.
 정희 (쌀쌀맞게) 그냥 어딘지만 알려 주세요.
 영철 숙박 삼만원에 식사 오천원 어떻습니까?
 정희 네?
 영철 여기 다 둘러 봐도 삼만원 하는 텐 없습니다.
 식사도 가정식 백반이라 식당밥보다 나올기고..
 정희
 영철 어쩔 겁니까?

이미 어두워진 주변을 둘러보는 정희.
 그런 정희를 느긋하게 보며 기다리는 영철.

씬10. 영철의 민박집 방안/ 저녁

마당을 두고 마루로 연결된 여러 방이 나란히 있는 그저 그런 민박집 안.
 영철의 안내에 그중 한방으로 온 정희와 연호.
 문을 열면 초라하고 작은 방에 기가 막힌 정희.
 정희의 그런 표정을 재빨리 읽는 영철.

영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저도 이 근방엔 오만원 아래론 없을 기라예.
 정희
 영철 어쩔겁니까?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지갑에서 돈을 세어 꺼내 주는 정희.

영철 식사는 안 하십니까?
 정희 ...

어쩔까 하는 표정으로 보다 오천원 한 장을 더 꺼내준다.

정희 일인분만 주세요.
영철 ...?
정희 ... 전 생각 없어요.
영철 ...(혼잣말로 핏 웃으며 돌아선다.) 누가 뭐랬나?
정희 (기분나빠 얼굴 굳는다.)
영철 잠깐 기다리이소.

씬11. 민박집 방안/ 저녁

문을 열고 상에다 밥을 차려 가지고 나오는 영철.
정희 밥상을 받아 들면,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에 김치, 밀반찬 한 두 개로 대충 차린 초라한 밥상이다.
이게 뭐냐는 표정으로 항의하듯 영철을 보는 정희.
영철은 그런 정희를 보지도 않고 문을 닫고 가버린다.
짜증이 나지만 애써 참고 손가락을 들어 연호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하는 정희.
그때 갑자기 연호가 입안에서 우물거리다 멈추고 입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머리카락이다.
인상이 굳으며 벌컥 문을 열고 나가는 정희.

씬12. 영철의 방/ 저녁

썩썩거리며 영철의 방문을 두드리는 정희.

영철(VO) 누구십니까!
정희 아저씨, 잠깐 저 좀 불래요?
영철(VO) 문 여이소.
정희 ...

내다보지도 않는 영철의 소리에 기막혀 하다 방문을 소리 나게 벌컥 여는 정희. 열린 문 사이로 영철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잠을 자고 있는 어느 속옷만 열 두살정도의 여자아이(유림)의 몸을 수건으로 씻겨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코마상태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모습,
그 모습에 움찔하며 놀라 분노가 수그러드는 정희.

영철 (통명스레) 뭐 일잉교?
정희 ... (그 모습에 수그러들고) 아니, 됐어요.
 ... (돌아서려다 다시 뒤돌아서서)
 근데 다음엔 요리할 때 모자나 쓰시고 하시죠?
 밥 먹다 머리카락 나오면 정말 기분 그렇거든요?
영철

문을 닫으려는데 칠순 정도의 할아버지(영철부)가 어느새 뒤에 와 서있다.

영철부 (오바하며) 하이구야. 음식에 머리카락이 빠졌능교?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보이소. 퍼뜩 내 다시 차려 드리겠심더.
정희 아니, 됐어요. 괜찮습니다.

영철부의 오버어린 사과에 민망해지는 정희. 얼른 방으로 들어간다.

썸13. 민박집 방/ 밤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운 정희와 연호,
등을 만져주며 연호를 채우는 정희.

연호 엄마. 아기 고래는 잠을 잘 때 어떻게 하고 자?
어부바 하고 자?
엄마 찌찌 먹고 자?
정희 ... 글세.. 이렇게 꼭 안아 주고 자나..?

부드럽지만 우울하고 착 가라앉은 표정으로 연호를 쓰다듬는 정희.
연호가 어느새 그런 정희의 품에 안겨 잠이 든다.

썸14. 정희의 꿈속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느 어두운 공간, 정희가 얼굴에 온통 눈물범벅인 채 연호를 찾고 있다.

정희 연호야! 연호야!

그때 어느 어두운 구석, 연호가 홀연히 나타나 그런 정희를 본다.

연호 엄마!
정희 (돌아보며) 연호야!

달려가 연호를 껴안는 정희

정희 연호야! 연호야! 어디 있었어?

정희 울며 연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무언가 손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 손을 본다.
그런데 손에 묻은 흥건한 피.
정희가 연호의 머리를 보니 연호의 뒤통수가 온통 피범벅이다.

썸15. 민박집 방/ 밤

헉 하고 놀라며 눈을 뜨는 정희
정희 안도의 숨을 쉬고 옆을 보는 데 연호의 자리가 비어있다.

정희 연호야! 연호야!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방안을 둘러보는데,
옆 이부자리에서 연호가 눈을 부비며 일어난다.

연호 엄마, 왜 그래?
정희 ...!

썸16. 욕실/ 아침

연호의 목에 수건을 두르고 세수를 시켜 주는 정희.
씻기 싫어서 목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연호를 씻긴다.

연호 목은 닦지 마. 간지러.. 히히

썸17. 마당/ 아침

방안에서 나와 신발을 신는 정희와 연호.
눈을 감은 유림이 휠체어에 앉아 아침 햇살을 쬔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희와 연호.

연호 (킁 웃으며) 엄마. 저 누나 잠꾸러기인가 봐.

정희 대꾸 없이 연호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문 옆 창고 쪽에서 연탄집게로 연탄을 하나집어 나오는 영철부와 마주친다.
영철이 들고 있는 연탄을 보는 정희.

영철부 날씨가 쌀랑해져서 불 좀 땠라 갑니다.
정희 ...예? (누가 물어 봤냐는 식으로 보는데)
영철부 이걸 저기 거실에 연탄난로가 떼는 기고.. 손님방에 보일라는 도시 가
스라서 연탄가스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희 아..예.
영철부 오늘은 어디 가실랍니까?
정희 ... 관경선 타려고요.
영철부 ...고래 보실라꼬?
정희 예.
영철부 내도 고래 본지 참말로 오래 됐네.
 오늘 날씨도 참 좋고.. 고래 꼭 보고 오이소.
정희 네.

정희, 건성으로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영철이 안채 미닫이문을 열고 나온다.

영철 ...아침식사는 안 하십니까?
 정희 (통명스레) 나가서 먹을 거예요.
 영철
 혜수 밖에서 먹으려고요.
 영철부 그렇게 하이소. 상관 없심더.
 (눈치보다) 그런데 울산엔 우안일로 혼자 오셨능교?
 정희 예?(이상한 시선으로 영철부를 본다.)
 영철부 (민망하게) 아이라예. 구경 잘하고 오이소.

정희, 영철부의 말에 고개로 인사하고 연호의 손을 잡고 가려는데,

영철부 (눈빛이 빠르게 변하며 상황파악하고) 영철이,
 니 서울 덕 관경선 타는 데 구경 시켜 주고 온나.
 영철 예?
 영철부 ... 니 가면 꿈짜로 태워주지 않나? 울산 구경도 시켜드리고.

영철부의 의중을 알아차리자 황당한 나머지 버럭 화를 내는 영철.
 혜수도 기가 막힌 표정으로 영철부를 본다.

영철 아버지. 노망 드셨능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영철부 아이, 그게 아이라..
 정희 됐습니다. (기분 나쁜 내색을 하며 뒤돌아선다.)

꾸벅 인사를 하고 사탕을 받아 챙겨 먹는 연호의 손을 껍 잡아끌며 대문을 나서는 정희.

썸18. 대문 밖/ 아침

어이없어 하며 대문을 나서는 정희.

정희 기가 막히네. 정말.
 연호 왜? 엄마.
 정희 ... 아니야.
 연호 근데 그 아저씨.. 왜 화를 내?
 할아버지가 우리 배 태워 주고 울산 구경시켜주라는데..
 정희 ... 연호야. 너 유치원에서 배웠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연호 ... 어.
 정희 아무리 꿈짜로 뭐 준다 해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연호 ... (고개 끄덕끄덕)

썸19. 시내 분식점/ 아침

돈가스 한 그릇과 김밥 한줄 시켜 먹는 연호와 정희.
정희가 열심히 돈가스를 잘라 연호의 입에 넣어 준다.

<시간경과>

정희가 계산을 하고 나간다.

주인 안녕히 가이소.

정희가 나간 후, 정희의 테이블에 놓인 돈가스를 본다.
떨어 놓기만 하고 먹지 않은 돈가스.

주인 맛이 없노? 하나도 안 묵웃네. 묵지도 않을 거 무하러 시켰노?

썸20. 바다 위/ 낮

바다 위를 유유히 헤엄쳐 지나가는 고래바다여행선.
배의 몸체에 그려진 고래그림이 인상적이다.

썸21. 관경선/ 낮

관경선 난간에 기대 바다를 보는 정희와 연호.

연호 고래는 언제 나와? 엄마?

정희 좀만 기다려 봐.

연호 아이씨.. 왜 이렇게 고래가 안 나오지?

난간에 고개를 쪽 빼고 바다를 들여 다 보는 연호.

그런 위태로운 연호의 모습에 정희가 화들짝 놀라 연호를 끌어당긴다.

정희 거기 매달리지 마. 그러다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해?

연호 걱정 마. 나 문화 센타에서 수영 배워서 잘하잖아.

정희 큰일 날 소리 말고 엄마 뒤로 와.

연호 싫어. 가까이서 볼 거야.

고래를 기다리기 위해 턱을 괴고 바다를 보는 연호.

그러다 엉덩이를 빼더니 소리를 지른다.

연호 (소리를 지르며) 고래야~ 고래야~ 어디 있니?

아, 엄마 이래서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봐.

엄마, 재밌지?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마냥 신기해서 웃는 연호.

씬22. 고래바다 여행선 선착장/ 낮

배에서 내리면서 관경선의 한 직원에게 항의를 하는 정희.

정희 아저씨, 40프로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고래를 보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만 실컷 봤다구요.

직원 우리가 고래를 가둬 키우는 게 아니라 항시 고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서 너번은 배를 타야지 고래를 한번 볼까 말까하는데 처음 타가지고 고래를 보면 운이 좋은 기라예.

정희 ... 그럼 또 이배는 언제 출항하는 거예요?

직원 토요일 일요일마다 출항을 하니까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희 ... 고래도 못 보는 배가 무슨 고래바다여행선이야? .

차갑게 내뱉듯 말하고 돌아서는 정희.

그런 정희의 태도에 기분이 언짢은 관경선 직원,
연호는 여전히 고래타령을 하고 있다.

연호 고래~ 고래~ 고래 보고 싶었는데..

정희 시끄러워.. 조용히 해.

연호 고래~ 고래본다고 했잖아.

갑자기 짜증이 솟구치는 정희.

정희 내가 시끄럽다고 했잖아. 조용히 하란 말야.
없는 고래를 어찌란 말야!

갑자기 화가 폭발해 연호의 등짝을 한 대 때리는 정희.

정희에게 맞으며 와왕~! 눈물을 터트리며 연호.

그렇게 맞다가 서운하고 분에 겨운지 정희를 노려보다 마구잡이로 손을 휘저으며 때리기 시작한다.

연호 엄마. 미워! 저리가!

정희 ...(연호의 도발에 멈칫하고)

연호 히! 히..! 내일부터 엄마 보면 누구세요? 라고 물어 볼 거야. 히히..

혜수 정말이야?

연호

정희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우리아들 아는 척 할 거야.

그제야 화가 조금 풀린 얼굴로 정희를 보는 연호.

정희 (꼭 껴안으며)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응?
 연호 (눈물을 흘쩍 거린다.)
 정희 미안해. 미안해.(꼭 껴안는다.)
 연호 다음부터 그러지마.
 정희 우리 바닷가에 가서 놀자.

원23. 몽타주/ 낮

주전 해안

-백사장이 아닌 새까만 자갈밭으로 된 해안가에 앉아 바다를 보는 정희.
 연호가 그 해안가에서 까만 몽돌을 모아 작은 독과 탑을 만들며 놀고 있다.

태화강/ 십리 대숲 길.

-수많은 백로 떼들이 날아다니는 환상적인 태화강변의 풍경.
 그 백로 떼를 보며 환호하는 연호.

-국화 꽃밭너머로 거대한 대나무 밭이 펼쳐져 있는 십리 대숲이 보인다.
 그 앞 국화 꽃밭을 배경으로 핸드폰으로 정희의 사진을 찍는 연호.
 빼뺏어지게 찍히는 정희의 모습,

대왕암공원

-대왕암사이 대왕교를 건너는 정희와 연호.
 연호가 웅장한 바위들을 보다가 연호를 보는데 연호가 없다. 얼굴색이 변하며 연호를 찾는 데 바로 뒤에서 연호가 나타난다. 안도하며 연호의 손을 잡는 정희.

원24. 항구 근처 해변/ 저녁

저 멀리 울산 공업단지의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속에서 현란하게 반짝인다.

연호 엄마, 꼭 크리스마스 같다.
 정희 (쓸쓸하게) ...그러네.
 ... 저렇게 이쁜 건 모두 멀리 있어.
 연호 ... 여기 가까이 있는 것도 있잖아.

연호가 자신의 얼굴을 정희에게 바짝 댄다.
 그런 연호의 얼굴을 가만히 보는 정희.

정희 그래. 우리 연호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연호 엄마. 나 얼마나 좋아해?

정희 저 하늘이랑 바다랑 합친 거보다 많이...
 연호 나도 엄마가 좋아.
 정희 ...
 연호 영원히...
 정희 영원하다는 말도 알아?
 연호 응...끝나는 거 없이...난 끝나는 거 없이 엄마가 좋아.
 정희 나도 그래...
 연호 어? 고래다.
 정희 뭐? 난 안 보이는데..
 연호 저기 봐봐. 고래 보이잖아.
 에이, 또 들어갔다.
 정희 고래는 깊은 바다에 사는 거야.
 연호 아니야. 물가 근처로 오기도 해.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근데 나 엄마.. 나 이제 고래랑 놀아도 돼?
 정희 뭐?
 연호 고래랑 친구하고 싶어.
 정희 친구해.
 연호 그럼 나 고래랑 놀고 있는 동안 심심하다고 울면 안돼.
 알았지? 약속!

연호가 내민 새끼 손가락에 엉겁결에 손을 거는 정희
 그러자 연호가 재빨리 일어나 바다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깜짝 놀란 정희가 그런 연호를 따라간다.

정희 연호야! 연호야!

허둥지둥 연호를 따라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어둑어둑해진 바닷가엔 어느새 연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울음을 터트리며 연호를 찾는 정희.
 그때 저 멀리 자전거를 탄 영철이 오다가 그런 정희를 발견한다.
 정희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자전거에서 내려 정희에게 오는 영철.

영철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정희 우리 연호가 없어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영철 연호가 누구니까?
 정희 우리 아들, 연호야.
 영철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혼자 여행 온 거 아닙니까?

충격을 받은 얼굴로 얼음처럼 굳은 정희.
 멍하니 영철을 보는 정희.

영철이 이상한 눈으로 그런 정희를 본다.

영철 (전화기 꺼내며) 119에 신고해예?

넋이 빠져 대답 없이 갑자기 무너지듯 바다 물에 주저앉는 정희.
영철이 그런 정희를 이상하게 바라본다.

썸25. 민박 집 안/ 밤

정희가 핸드폰 앨범속의 사진들을 보고 있다.
고래박물관이나 해변에서 찍은 연호를 찍은 사진들은 모두 비어있다.
그 핸드폰 사진을 보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정희.
한참을 그러고 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보면 연호의 유해단지로 보이는 어느 상자하나.
갑자기 정희의 눈에 눈물이 어른거리기 시작한다.

<시간경과>

어두운 방안 우두커니 무릎에 고개를 박은 채 앉아 있는 정희.

<플래시 백>

- 골목에서 전화를 하며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듯한 정희.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본다.

-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연호를 껴안고 오열하는 정희.
피에 흥건한 연호의 유치원 복. 정희의 몸에도 피가 묻어 있다.

<현실>

정희, 눈물이 흥건한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더니 밖으로 나간다.

썸26. 마트 안/ 밤

빈개탄과 화로를 카트에 넣는 정희.
얼굴이 굳은 채 카트를 밀다 한쪽 코너에 진열되어 어린이용 음료수병을 본다.
꺼내어 카트에 담는 정희.
그리고 장난감 코너에 있는 사탕이 들어 있는 장난충도 카트에 넣는다.

썸27. 약국/ 밤

약국에 들어서는데 정희.

정희 (머뭇거리다) 아저씨 수면제 좀 주세요.
약국 ...(혜수를 보다) 약국에선 병원 처방 없인 수면제 못 팔고요.
처방 없인 수면 유도제만 팝니다.
정희 뭐가 다르죠?

약국 수면제는 확실히 잠이 오게 하는 거고.. 수면 유도제는 뭐랄까 좀 약한 거지 예... 근데 이런 거 먹지 말고.. 잠잘 때 뜨거운 물에 발을 푹 담그고 따뜻한 우유한잔 먹으면 잠이 살살 올 기라예.
정희 그냥 수면 유도제 하나 주세요.

썸28. 민박집 마당/ 밤

낮에 봐두었던 연탄 창고로 가 연탄을 하나 꺼내는 정희.

썸29. 방안/ 밤

방안에서 장을 봐온 물건을 꺼내는 정희.
화로와 번개탄을 꺼내다 어린이 음료수와 장난감 총도 꺼낸다.
어린이 음료수병을 따 수면유도제와 함께 먹는 정희.

<점프>

젓가락 두 짝에 번개탄을 대고 라이터로 불을 피우자 연기가 치익! 하고 솟구친다.
당황하는 정희.
허둥대며 불붙은 번개탄에 얼른 화로에 내려놓고 그 위로 연탄을 올려놓는다.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가 이불을 꺼내 이불을 뒤집어쓰는 정희.
어느새 방안은 연기로 가득 차오르고....
이불속에서 콜록 콜록 기침을 하는 정희.
그때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영철(VO) 이보이소! 일어 나이소! 불 났심더!!

정희가 대답을 않자 영철이 어디론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곧이어 열쇠를 따는 소리가 들리고 영철이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자욱한 연기에 허둥대다 바닥에 놓인 연탄화로를 보는 영철.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표정이 된다.

영철 (이불을 젖혀 정희를 잡아끌고) 이게 무슨 짓이고!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을라카노!!

영철, 씩씩거리며 환기를 시키고 욕실로 가 바가지로 물을 퍼 화로를 끄기 시작한다.

썸30. 영철의 민박집 마당/ 밤

연탄가스와 약기운으로 기운 없이 있는 정희의 손을 잡아 팽개치다시피 끌어내는 영철.

영철 썸 나가이소! 죽을라면 혼자 죽제. 어데 남의 장사 망하게 할라꼬!

정희, 가방을 들고 비틀비틀 나간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는 영철.

어느새 소란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온 영철부가 나가는 당황한 모습으로 혜수와 영철을 번갈아 본다.

영철 아주 미친년아이가?

영철부 죽을라꼬 온 사람 같 데가 어디 있다고 내쫓노?
이 밤중에.. 지금 나가면 딱 바다에 빠져 죽겠구마.

영철

썸31. 해안가 도로/ 밤

정희가 비틀비틀 걷고 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걷다 쓰러져 오마이트를 한다.

한참을 헛구역질을 하다가 쓰러져 길바닥에 누워 버리는 정희.

다른 일각 밖으로 나온 영철이 정희를 찾고 있다.

그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 해안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게 보인다.
가서 보면 정희이다.

영철 가지가지 하는 구마.

썸32. 병실 안/ 아침

정희가 팔에 링거를 매단 채 누워 있다.

서서히 잠이 깨는 정희.

그 옆에 앉아 있던 영철이 한숨을 쉬며 그런 정희를 본다.

영철 이제 정신이 듭니까.

정희

영철 (한숨 쉬며) 가뜩이나 살기 빠빠한테 왜 이리 기운빠지는 일만 생기
노?

썸33. 영철의 집 마당/ 아침

영철이 정희를 부축한 채 마당 안으로 들어온다.

잔뜩 호기심이 어린 얼굴로 그런 둘을 바라보는 영철부.

영철부 어데 갔다 이제 오는 길이가?

영철 아버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영철이 정희를 부축한 채 방안으로 들어간다.

썸34. 민박집 안/ 밤

들어와 이불을 대충 깔아 주는 영철.

영철 눈 좀 더 붙이이소. 나도 말아 본 적 있는데 연탄가스 독한 겁니다.
 정희
 영철 (나가려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죽을라는 용기로 왜 못 삼니
 꺼?
 정희

원35. 거실/ 밤

방에서 나와 거실 주방 쪽으로 오는 영철부.
 영철은 식탁의자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다.

영철부 우얀 일로 죽을라고 했다노?
 영철 별 같지도 않은 속사정이 있겠지예.
 영철부 ... (영철을 보다 한숨 쉬며) 그래 마, 죽을라고 온 사람.. 살리 냈
 으니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기라 그래 생각해야지. 색시는 참하게 생 겼 고마.
 영철 아버지. 고마 하이소.

벌떡 일어나 방안으로 들어가는 영철.

원36. 영철의 집 방안/ 아침

잠을 자고 있는 유림이를 뒤집어 주고 몸을 주물러 주는 영철,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영철 일어나 문을 열어 주면 가방을 든 정희가 서있다.

영철 잠깐 들어 오이소.

혜수, 머뭇거리다 방안으로 들어간다.

영철 왜 좀 더 쉬시다 가시지예. 아직 어지러울 텐데...
 혜수 팬찮아요.

잠시 침묵

정희 ...(가만히 얼굴을 보며) 예쁘게 생겼네요.
 영철 ... 잠만 자긴 아깝지예.
 이렇게만 있으면 욕창이 생기니까는 두세시간 마다 뒤집어 주고
 주물러줘야 합니다...
 이래 누워 있어도.. 다 말귀 알아듣고 그러니다.
 다정하게 말 걸어 주면 얼굴색이 틀려지고 화를 내면 얼굴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금방 눈을 뜨고 일어나 말을 걸 거 같은데...

사고 당하고 이래 된지 벌써 5년입니다.

그동안 키도 이렇게 많이 커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정희 ...

영철 그래도 내는 언젠간 우리 딸이 일어 날 거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돼서 널 보고 아빠 하고 웃을 기라예.

정희 그래도 당신 딸은 살아 있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없는데..

영철 ...!

할말을 못 찾고 그저 유림이만 바라보는 영철.

정희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영철의 앞바닥에 내려놓는다.

정희 여기 방세와 병원비 드릴려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고마웠습니다.

방밖으로 나가는 정희.

영철이 그런 정희를 바라본다.

썸37. 민박집 밖 마당/ 아침

정희가 방을 나와 신발을 신는다.

마당 한 켠에 앉아 휠체어를 탄 유림에게 햇별을 쬔고 있는 영철부가 그런 정희를 본다.
그때 영철이 방문을 열고 나온다.

영철 어디로 가실라꼬예?

정희 ...(대답 않고)

영철 아무튼 조심히 가이소.

정희저 관경선 승선이 몇 시죠?

영철 오늘은 배 없을 텐데....

정희 고래 보려면 관경선 말고는 없나요?

영철 고래 보실라고 예?

정희(고개 끄덕인다.)

영철 같이 가입시다. 친구 놈 배타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영철부 그래. 용상이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마.

(유림을 보며) 아버지 유림이도 데려 갈 까예?

영철부 ... 그람 좋지.

(휠체어의 유림을 보며) 차도 맨 날 집구석에만 누워 있으면 답답할텐

데.. 바닷바람 쏘이면 기분 좋을기라.

정희 (휠체어에 앉은 유림을 본다.)

썸38. 차안/ 아침

영철의 차 뒷자석에 탄 정희와 연호. 유림.

정희가 자신의 어깨에 기대 잠든 유림을 쓰러지지 않게 잘 안고 있다.
그런 유림을 위해 천천히 운전을 하는 영철,
차창 밖으로 장생포 향이 보인다.

썸39. 장생포 항 선착장/ 오전

부둣가의 어느 작은 통통배에 타는 영철과 정희,
영철의 친구 용상(40대초반)이 유림의 휠체어를 들고 탄다.

용상 니 대단 하구마. 저번엔 소풍도 가더니 이젠 바다까지 보여주는 기가.
영철 유림이 외출하는 거 좋아하는 데 어찌노? 이렇게 바깥바람 쐬면 얼굴색이 달라
진다 안하나?
용상 (유림이 얼굴 바짝 대고) 그라노? 유림이 밖에 나오는 게 그리 좋나?
 (정희를 슬쩍 보고) 누고?
영철 있다.

썸40. 통통배 안/ 낮

관경선이 바다를 헤치고 지나간다.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고 있는 정희, 영철.
유림도 휠체어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바람을 맞고 있다.

영철 고래 한번도 못봤십니까?
정희 ... 네. 박물관에서 돌고래만 봤어요.
영철 ... (정희에게) 내도 살아 있는 진짜 고래는 얼마 못 봤어예. 맨 토막
나고 고깃 감으로 팔려 나가는 고래만 봤지예.
정희 ... 오늘 고래를 못보면 어찌쥬?
영철 오늘 못 보면 다음에 오면 되지. 고래가 없어지는 것도 아이고 오늘날만
 날입니까?
정희 ...
영철 그란데 고래가 뜻하는 게 뭔지 압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정희 ... (정희 말없이 바다를 바라본다.)
영철 고래가 옛날만큼 없어졌다고 그라는데 그래도 고래는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다엔 고래가 있는 거라예.
정희
영철 죽지 마이소.
정희 ...?(영철을 본다.)
영철 여기 뛰어들지 말란 말입니다. 엄마가 죽으면 자식도 죽는 기라예.
정희
영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식은 없어지지 않는 기라예.

영철의 말을 들으며 말없이 바다를 보는 정희.
그때 저 바다 한가운데 고래가 물기둥을 솟구치며 나와 헤엄친다.

용상 (환호하며) 고래 나왔네! 고래!

고래를 보는 정희의 감격스러운 얼굴.
영철도 얼굴이 밝아지고..
혜수의 얼굴에 어느새 눈물이 어린다.
가방을 꺼내 가지고 온 유해를 뿌리기 시작하는 혜수.
유해는 바람에 날려 고래가 헤엄치는 바다로 떨어지고...
유림은 휠체어에 눈을 감은 채 바람을 맞으며 누워 있다.
유림의 얼굴이 미소를 짓는 것처럼 환하다.

—끝—